

이슈

2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844호

내가 왜 떴게?

중국 명부자 남편...소원 이룬 함소원?



함소원

●함소원 여의도30배 : 18년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함소원이 방송에서 입담을 과시했다. 중국인 남편과의 달달한 러브 스토리를 속 시원하게 공개했다. 함소원의 남편인 진화는 1994년생으로 1976년생인 함소원보다 18세 연하이다. 농장사업가의 2세로 의류 사이트를 경영하는 사업가이자 중국 SNS의 스타이다. 웨이보 팬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함소원은 남편의 넘치는 사랑을 자랑했지만 "내 나이를 듣고 (남편이) 한 동안 잡수를 뒀다" 밝히기도. 남편의 재력가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남편이 가진 땅이 여의도 30배(?) 정도"라 언급했다. 좋으시겠습니다. 결국 '소원' 이루셨군요.

화환에 드러나는 남한 김정은의 고충



●김정은 남한김정은 : 배우 김정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사진)이 누리꾼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다. 김정은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 화환에는 '부자되세요'와 함께 '남한 김정은'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부자 되세요'는 김정은이 과거 출연한 CF의 유명 카피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내 이름을 이렇게 써야할 줄 몰랐다"며 너스레를 떠는 글을 덧붙였다. 남한 김정은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는 날은 언제쯤 올까. "제가 북한 김정은입니다"하고 악수를 청해줄지도.

'20대 몸매' 김성령...뱀파이어 맞췄?



김성령

●김성령 몸매비결 :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김성령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성령이 음식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수백년, 수천년을 산다는 뱀파이어는 흔히 동안인 사람을 비유할 때 등장한다. 김성령은 20대에는 허리 사이즈 44, 현재는 55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을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 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이 장피해할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 했다. 88올림픽이 열린 1988년 제32회 미스코리아대회에서 '진'에 오르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김성령. 혹시 진짜 뱀파이어는 아니시죠?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이근호 낙마...신태용호 잇단 악재 | 투톱 카드 만지작...연막일까? 냉정한 현실 인식일까?



러시아로 향하는 '신태용호'가 부상 악재를 견뎌내고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권창훈과 이근호가 불의의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신태용호 태극전사들이 힘찬 출발을 마쳤다. 21일 파주 NFC에서 소집훈련 첫 날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

돌고 돌아 투톱으로...제로톱도 다시 본다

최전방·2선·측면 조합 원점 재검토 신태용 감독 "4-4-2도 바꿀 수 있다" 상대국 전력탐색 대비 연막 가능성도



또 한 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근호(33·강원FC)가 부상으로 2018러시아월드컵 출전이 좌절됐다. K리그 경기 중 오른 무릎 내측인대가 파열됐다. 당초 다행히 관장을 것이라는 1차 진단이 나왔지만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최종 진단결과 전치 6주 판정이 나왔다며 이근호를 소집훈련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남아공월드컵 직전, 컨디션 난조로 최종엔트리에서 탈락한 이근호는 골 맛을 본 4년 전 브라질대회에 이은 생애 두 번째 월드컵 출격을 꿈꿨으나 결국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초비상이다. 권창훈(24·다중)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데 이어 핵심 공격수를 둘이나 잃었다. 1번 옵션부터 유력한 조커까지 빠지면서 최전방과 2선 조합, 측면 활용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플랜A부터 B, C까지 완전히 흐트러졌다.

그런데 대표팀은 추가 발탁 없이 26명으로 소집훈련을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플랜Z'까지 꺼내야 할 판

공개한 소집훈련명단(28명) 가운데 공격수(FW)로 분류된 4명은 3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시 거론된 '투톱'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신 감독은 이근호 부상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이승우

(20·베로나)~문선민(26·인천 유나이티드) 등이 투톱을 만들 수 있고 모두가 공유할 다른 전술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방에 최적화된 장신 골게터 김신욱(30·전북 현대)과 호흡을 맞출 새도 스트라이커 등 맞춤형 인원을 선별하거나 황희찬(22·잘츠부르크)을 중심으로 한 '제로

(0)톱' 라인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예비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석현준(27·트루아)은 큰 틀에서 김신욱과 스타일이 비슷하고, 지동원(27·다름슈타트)도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손흥민(26·토트넘)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 이재성(26·전북)~구자철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왼쪽 무릎 인대가 좋지 않은 구자철의 재활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전제에서다.

여기에 오른쪽 날개 이창용(30·크리스탈 팰리스)이 경기력을 회복하고, A매치 경험이 없는 문선민과 이승우가 대표팀에 잘 녹아들면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훨씬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들의 전력탐색에 대비한 연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감독은 훈련소집엔트리를 발표하면서 "4-4-2로 정한 플랜A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4차례 A매치도 풀 전력을 구축하지 않을 뜻한 분위기도 조성했다.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과연 신 감독의 진짜 의중은 무엇일까. 뚜렷한 답은 다음달 18일 스웨덴과의 분선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타들의 관심마저 여론 재판에 내몰리는 세상

수지, 성추행 처벌 청원 동의했다가 법적 논란에 페미니즘 문제로 비화 윤두준도 BJ 방송 시청했다가 홍역

관심의 표현이 때 아닌 논란이라는 '불똥'으로 돌아왔다.

가수 수지와 남성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 틱탑의 니엘, FT아일랜드의 이홍기 등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낸 관심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논란과 비난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외에도 평소 많은 연예인들이 팬들과의 소통수단이었던 SNS를 통해 의도치 않게 논란에 휘말리면서 스타들의 평소 생각과 취향 등이 모두 무시되고 비난까지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이들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앞으로 더 신중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지만, 자칫 자유로운 소통을 원했던 이들의 바람은 뒤로하고 자기검열과 사상검증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지는 최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유명 유튜브 연예인이 3년 전 서울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신체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한 일이었다. 이를 본 수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올라온 해당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선블리 특정

청원에 끼여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잘 안다. 제 영향력을 알면서 어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저렇게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엉뚱하게도 페미니즘 문제로까지 번졌고, 수지가 언급한 스튜디오 측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운운했다.

윤두준과 이홍기, 니엘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란'은 더 황당하다. 우연히 시청한 한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아침에 온갖 비난은 다 받고 있다. 이들이 시청한 인터넷 방송 BJ들이 각종 비하 발언을 일삼고, 데이트 폭력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누리꾼들은 이들을 다함께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역시 예기치 못한 비난은



일상에서 보여준 스타들의 관심 표현이 왜곡되어 논란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사진은 수지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논란이 일자 남긴 사과문. 사진출처 | 수지 인스타그램

로 황당해하면서도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3월 레드벨벳 아이린은 페미니즘소셜 '87년생 김지영'을 읽은 적 없다고 말해 페미니스트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특정 신념이나 가치관의 표현이 아닌, 단순한 취향이나 호기심을 드러내는 일이 엄혹한 사상검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annoy@donga.com